

-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활용방안 -

의 정 토 론 회

- 일 시: 2017. 9. 13.(수) 14:00
- 장 소: 홍성문화원 대강당
- 주 최: 충청남도의회



충청남도의회

토론회 개요

- 일 시: 2017. 9. 13.(수) 14:00 ~ 16:30
- 장 소: 흥성문화원 대강당
- 주 최: 충청남도의회
- 주 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활용방안

진행 흐름

| 시 간 | | | 내 용 | 비 고 |
|--|-------|-----|--|-------------|
| 부터 | 까지 | 소요 | | |
| < 개 회 식 > | | | | |
| 14:00 | 14:05 | 5' | 개회 및 국민의례 | 사회 : 정책지원팀장 |
| 14:05 | 14:10 | 5' | 내빈소개, 개회사 등 | 이종화 의원 |
| < 토 론 회 > ※ 좌장 : 이종화(충청남도의회 의원) | | | | |
| 14:10 | 14:40 | 30' | 주제 발표 ▶ 금홍섭 / 대전시민사회연구소 부소장 ☞ 지역사회 안전실태 및 주민참여형 지역사회 안전역량 구축방안 | |
| 14:40 | 15:40 | 60' | 지정 토론 ▶ 광봉식/ 의용소방대 흥성연합회장 ▶ 최용영/대한적십자사 흥성지구회장 ▶ 이진수/충청남도 재난대응과장 ▶ 김광중/해병대전우회 충남연합회 부회장 ▶ 박근오/충남연구원 재난안전연구센터장 ▶ 김겸훈/한남대학교 교수 | 토론자 전체 |
| 15:40 | 16:10 | 30' | 자유 토론 | 발제자 및 토론자 |
| 16:10 | 16:25 | 15' | 형중 토론(질의 답변) | 참여자 전체 |
| 16:25 | 16:30 | 5' | 정리 및 폐회 | 좌장(이종화 의원) |

목 차

■ 주제발표

- ☞ 지역사회 안전실태 및 주민참여형 지역사회 안전역량 구축방안 5
금홍섭(대전시민사회연구소 부소장)

■ 지정토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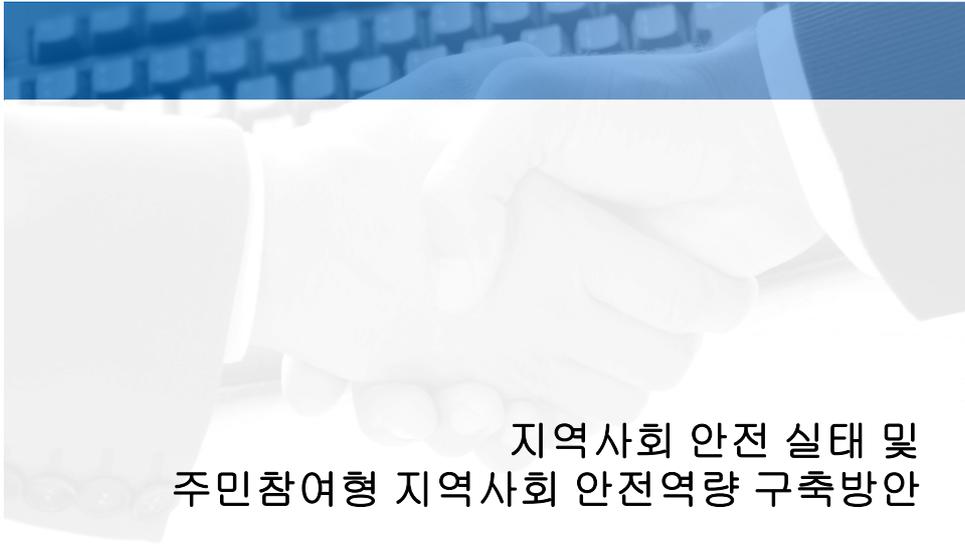
- ☞ 충남 의용소방대 마을담당제 33
곽봉식(의용소방대 홍성연합회장)
- ☞ 적십자와 충남도가 함께 걸어온 길 41
최용영(대한적십자사 홍성지구회장)
- ☞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활용방안 55
이진수(충청남도 재난대응과장)
- ☞ 재난·재해·구조 및 예방에 해병전우회 활용방안 63
김광종(해병대전우회 충남연합회 부회장)
- ☞ 충남의 안전비전2050의 효율적 실행을 위한 민관협력 방안... 71
박근오(충남연구원 재난안전연구센터장)
- ☞ 재난대응 강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민관협력 방안 ... 77
김경훈(한남대학교 교수)

주제 발표

지역사회 안전실태 및 주민참여형 지역사회 안전역량 구축방안

금 홍 섭

(대전시민사회연구소 부소장)



지역사회 안전 실태 및 주민참여형 지역사회 안전역량 구축방안

금홍섭 (사)대전시민사회연구소 부소장



발표자 소개

- 행정학 박사
-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원장
- 한남대 행정학과 겸임교수
- (사)대전시민사회연구소 부소장
- 통계청 청렴옴브즈만
- 공주의료원 이사
- 대전지방법원 국선변호인선임위원
- 대전지방경찰청 교통규제심의위원
- 대전광역시 지방분권위원, 사회적자본확충지원위원
- 대전광역시의회 국외여행심의위원
- 전) 대전참여저자시민연대 사무처장, 정책위원장

본 발표문은 학술적인 논거에 의한 글이라기 보다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지역사회안전역량 구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위한 발표문임을 사전에 밝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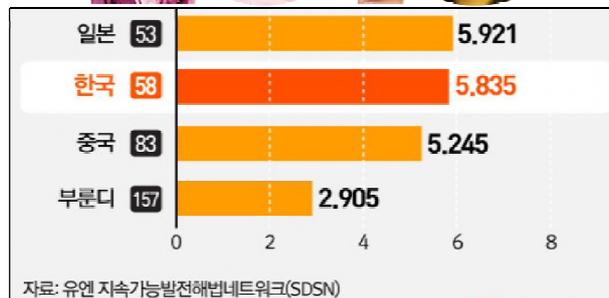


WALL ST

주민참여형 지역사회 안전역량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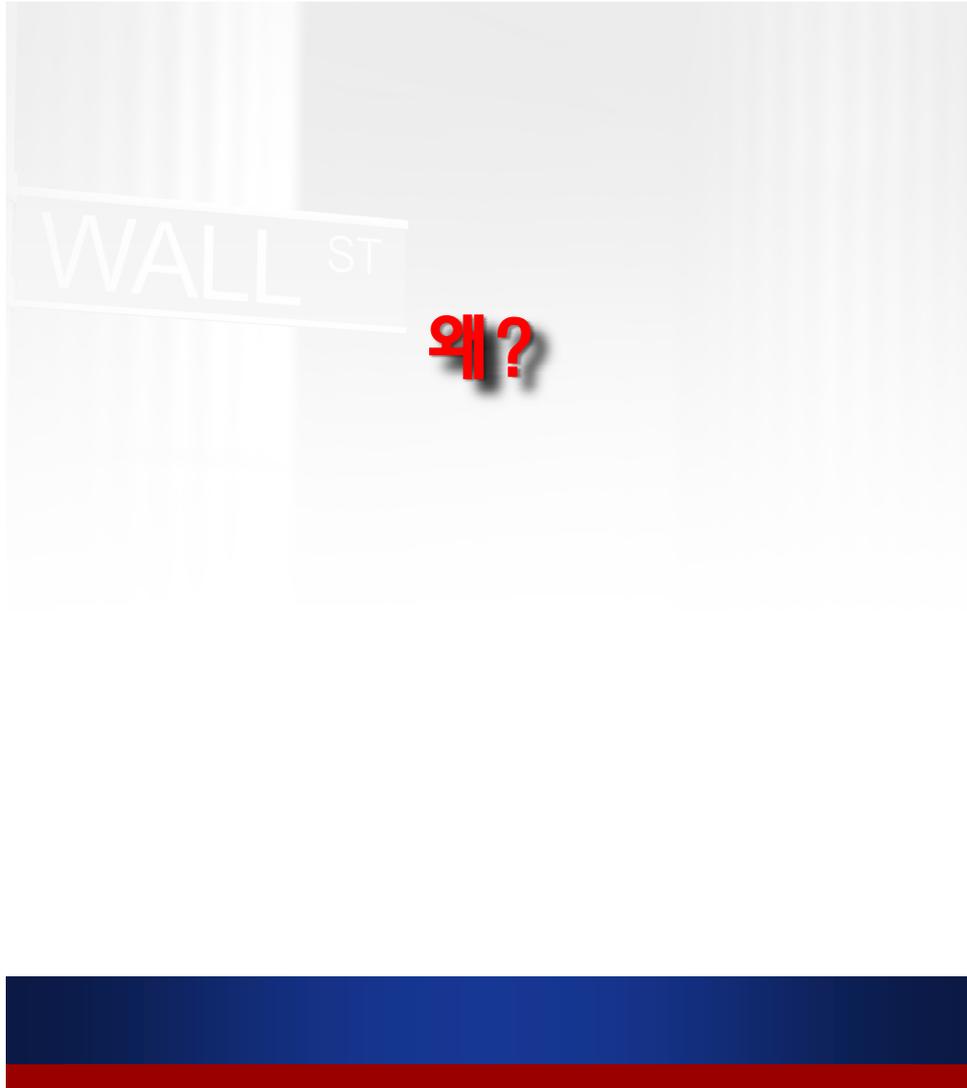
UN 세계행복지수

WORLD HAPPINESS REPORT



일본(5,400조), 한국(1,600조)

=> 경제규모에 비해 매우 불행한 나라



**<낮은 참여>와 <부패>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가 문제**

=> 소득은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요인중이 하나로 8%밖에 안됨

WA



재난재해
교통사고
자살
범죄
화재
안전사고
등등 ---

이런저런 시선



법과 제도 탓
정치인들 탓
관료들의 무능 탓
시민의식 탓
남 탓
등등 ---

<지역사회 안전문제에 대한 국민들은 책임이 없을까?>

- 부패문제에 대한 공무원, 정치인, 시민들의 자세는?
- 박수나 야유나 보내는 걸로 만족해야 하나?



“위임대리 받은 그 어떤 정부도 해당지역
유권자(주민)들보다 더 나은 수준일리는 없다”

(H. George Frederickson, 1991)

<주민들도 권한과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 잘못된 가치판단, 정책결정의 모든 책임은 시민들에게 전가됨
- 미래세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관객민주주의가 아닌 **참여민주주의** 구현되어야 하며
각 조직 스스로 변화하려는 **온몸주의적** 노력 절실

주민참여의 궁극적인 목적

- 나와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
- **삶의 질**을 높이려면, **정책의 질**(quality)이 좋아져야 함
=> **깨어있는 시민이 있는 지방정부**
- **정책의 질**이 좋아지려면, **주민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
=> **안전, 복지, 환경, 문화 등**

=> 알아야 **면장**을 할것 아닌가?

지방자치 및 지역사회 안전역량 개념

- 지방자치란?
 - 지역문제를 지역주민들 스스로 해결하는 것
- 지역사회 안전역량이란?
 - 지역사회 안전문제를 지역민들 스스로 예방하고 해결하는 역량
 - 행정, 소방, 경찰, 주민 등이 연계해 지역주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지키고, 안전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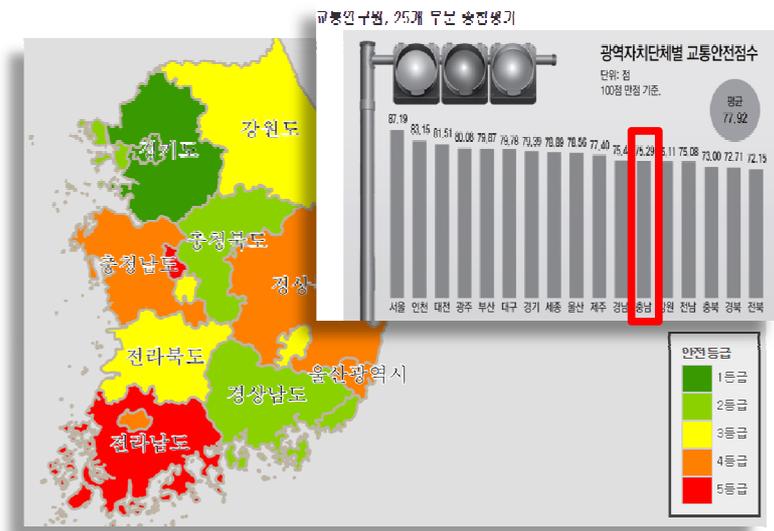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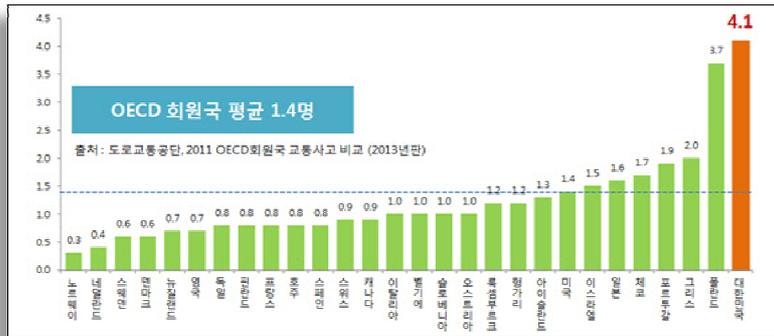
주민참여형 지역사회 안전 개념

- 주민참여형 지역사회 안전 개념
 - 주민참여로 <위험이나 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한 문제 해결로>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
 - 결국 <나와 우리가족, 더 나아가 우리동네와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
 - 주민참여형 지역사회 안전 대상
 - 자연적인 것 / 풍수해, 가뭄, 지진, 황사, 적조, 산불 등
 - 사회적인 것 / 교통사고, 화재, 범죄, 자살, 환경오염, 산업재해, 식품 및 의약품 문제 등
 - 기타 / 각종 안전사고 등
- => 주민참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냐에 따라 <국가(정부)>와 <지역사회(주민)>의 역할 차별적용
- + 국가 - 자연재해 예방 및 복구, 안전관련 각종 시설 등의 인프라구축
 - + 지역사회 - 교통, 화재, 청소년비행, 폭력, 범죄 등의 예방활동
- *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든데 있어서,
<주민참여>와 <협치(거버넌스)>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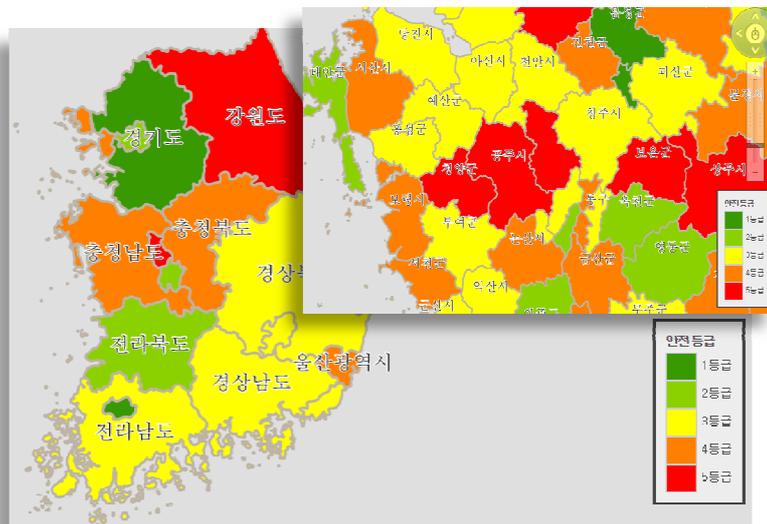
충청남도 교통사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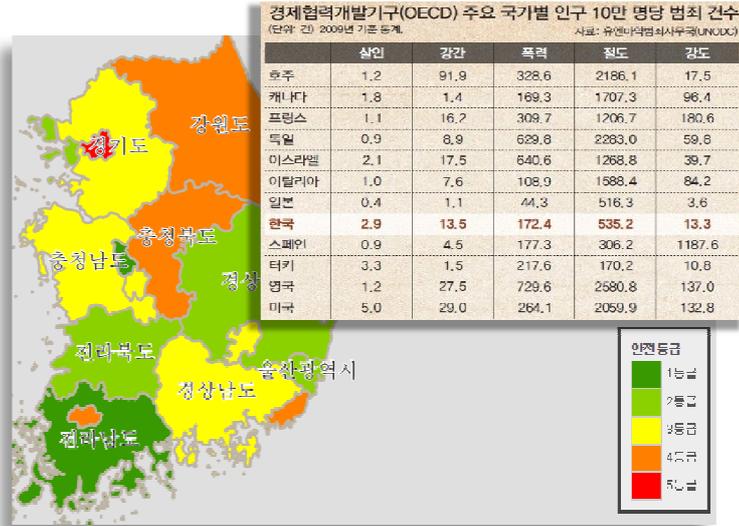


- **OECD 교통사고 사망자 수 2위 / OECD평균 3배**
 - 2014년 기준 4,647명, 보행자, 노인 사망자수 1위
 - 도심부 간선축 도로 주행속도 7,80km => 5,60km로 감소
 - 이면도로 30km, 이하, 스쿨존, 노인존 등 지정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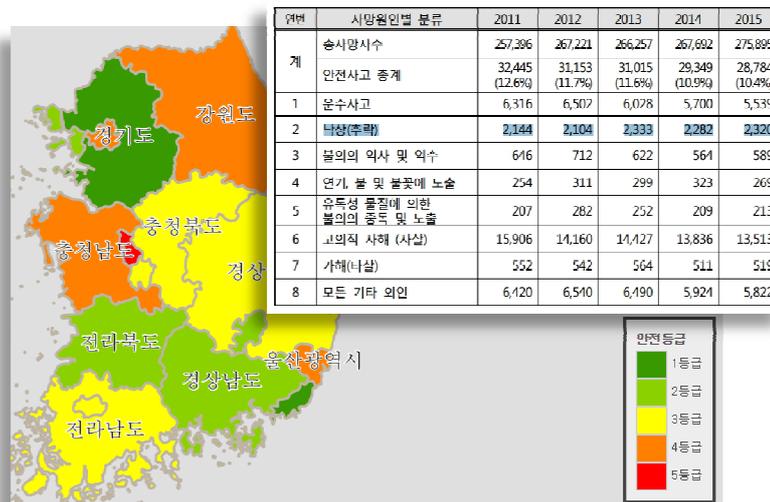
충청남도 화재 현황



충청남도 범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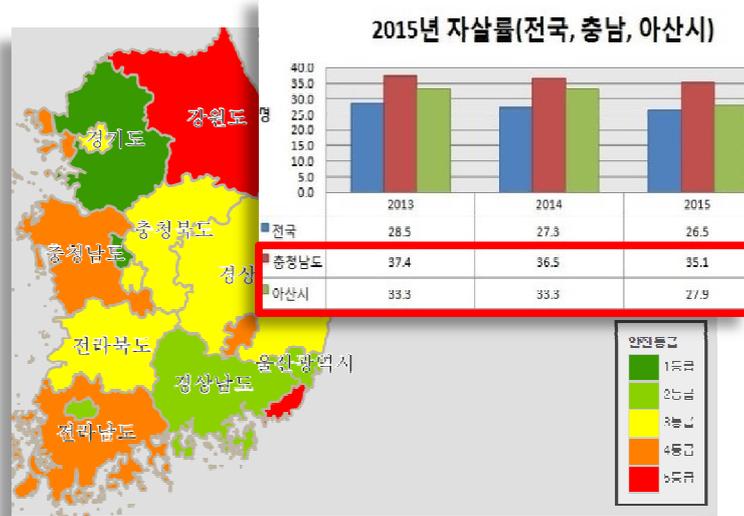


충청남도 안전사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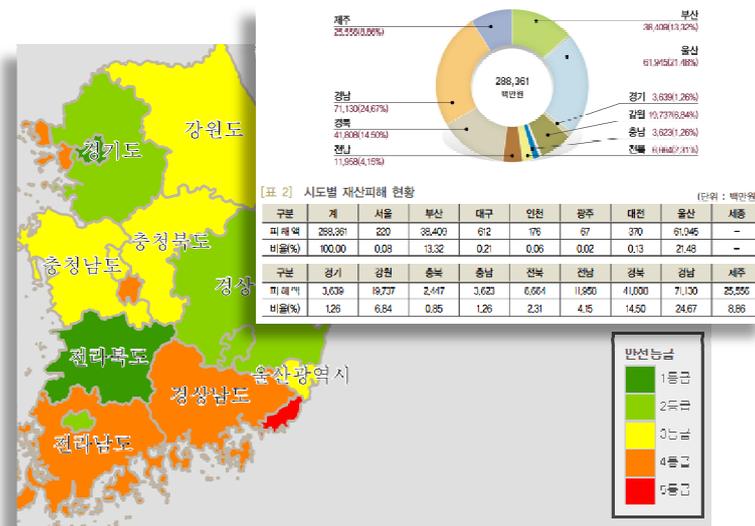
충청남도 자살 현황

OECD 35개 국가중 꼴찌(26.5명)



<12년째 자살률 1위, 하루 44명 자살, 노인자살률 인구 10만명당 80명대>

충청남도 자연재해 현황



지역사회 안전역량 구축의 배경, 적용범위, 역할분담

지역사회 안전역량 구축의 배경

첫째, 문재인 정부의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 추진

- 지방분권 방향 => 기존 양중심의 지방이양에서 자치권 및 자치역량 구축 중심이양(지금까지는 권한 및 사무만 이전, 재정이나 사람은 내려보내지 않았음)
+ <각종 안전관련 권한의 지방이양 추진>, <주민참여에 의한 자치역량 강화>
더 나아가 <지역사회 안전역량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방분권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

둘째, 정부 및 관 주도 안전대책의 한계 /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의 역할 강조

- 거의 모든 전문가들은 정부주도 관 주도의 하향식 안전정책은 실패했다고 결론
- 그 대안으로 <주민참여>와 <협치(거버넌스)>를 강조하고 있음
- 결국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함.

셋째, 지역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욕구수준이 날로 높아지고 있음

- 후기도시화사회에 있어서 주민참여는 더욱더 증가할 것
- 주민참여 확대는 자치권 및 자치역량 강화로 이어지고
- 주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지역사회 안전역량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

지역사회 안전역량 구축 적용범위 및 역할분담

주민참여형 지역사회 안전구축 범위 / 읍면동과 같은 근린생활권 단위가 적합

- 지역공동체, 같은학교, 생활밀착, 같은 공간 단위가 바람직

지역사회 안전구축을 위한 4가지 구성요소

- 지역밀착성
- 자발적인 참여와 네트워크
- 조직화된 활동
- 지속가능성

지역사회 안전구축을 위한 역할분담

- **정부** / 관련법, 재정(예산), 중장기 계획수립, 프로그램, 인프라 구축 지원 등
- **광역시도** / 통일성 고려 총괄, 광역단위 안전점검, 예방, 대책수립, 예산지원 등
- **시,군** / 행정, 물적지원, 관련위원회 구성, 관주도의 민관협력(거버넌스) 구축
- **읍,면,동** / 주민참여 중심 민관협력(거버넌스) 구축

지역사회 안전 우리 스스로 지킨다!
<국내외 사례>

해외 사례 / 미국, 영국, 일본

미국

- 연방재난 관리청(FEMA, 장관급)
- 일원화된 강력한 재난대응 역량 목적

영국

- 엘름파크역에 클래식 음악방송 실시뒤 범죄 감소 효과
- 18개월동안 강도(33%), 승무원 공격(25%), 기물파손(37%) 감소효과

일본

- 재난 전문기관 없지만, 정부와 주민간 긴밀한 거버넌스로 재난,재해 극복
- 유치원에서부터 반복적인 교육과 훈련으로 지역사회안전 역량 기반이 되고있음
- 지진 등 재해, 재난 교훈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감
- 일본에서도 <주민참여>가 성공의 핵심관건으로 지목되고 있음

국내 사례 / 법과 제도, 성공한 정책, 안전프로그램

국내 법과 제도의 성공 사례

- 안전지역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
 - + 재난재해로부터 취약한 지역이나 계층에 대한 지원명분 및 행정의 책임성 확보
 - + 지원분야는 주거 등 생활환경 개선사업, 소방전기 등 안전노후시설 교체 등
- 지역사회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 + 공원,아파트, 주거지역 등 생활공간의 설계단계부터 범죄 예방을 위한 건축사례
 - => 담장 허물고, 밝은조명, 방치된 공터 디자인, 가스배관 개선, CCTV설치 투명엘리베이터 설치 등
 - + 2005년 부천시에서 처음 시행, 현재는 전국적으로 확산추세
 - => 범죄 감소 효과, 그러나 표준설계 지침이 없는 등 문제점 드러내고 있음
 - => 성남시의 경우 다가구 주택에 한해 가스배관에 형광물질 페인트를 도색한후 이후 주택침입 범죄율이 45% 감소하는 효과 나타남
- 지능형 열영상 화재경보 시스템
 - + 주거밀집지역 및 산악지역의 화재를 지능적으로 확인, 관련기관에 통보
 - + 재래시장에도 설치 골든타임 확보로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

가장 성공한 안전정책 사례

- **안전벨트 착용율** / 20년전 10% 미만에서 2016년 **전국평균 84.1%로 증가**
 - + 동승자 안전벨트 착용률은 평균 76.8%, 뒷좌석 착용률은 12.6%
 - + 참고로 충청남도의 안전벨트 착용률은 69%로 하위권으로 나타남
- **심폐소생술 교육경험률**
 - + 2016년 평균 28.7%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 **중앙정부 지원 사업**
 - + 안전도시 시범사업, 국민재난안전포털(행정안전부), 방재마을시범사업, 화재없는 안전마을(소방방재청), 살고싶은 도시만들기(국토부), 빅데이터 활용 재난관리사업(미래창조과학부) 등
- **지방자치단체 안전/방재 사업**
 - + 각종 안전도시 및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다수지역 추진중), 관련조례 등 제정하여 추진하고 있음, 스쿨존, 노인존, 생활존 등(다수지역 추진중), 안전한 거리 조성, 어린이에게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다수지역 추진중), 지역사회 안전지도 만들기 사업(다수지역 추진중)

지역사회 안전역량 구축의 문제점 및 구축방향

지역사회 안전역량의 문제점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부재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해줄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
-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구성원들의 인식전환 필요
- + 지역사회 내 구성원들이 안전개념을 이해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인식하는 것

안전관련 정책마저도 정부, 관주도의 하향식 정책에 그쳤음

- 관주도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음
- 다양한 해외 및 국내사례의 공통된 성공요인으로 <주민참여>와 <거버넌스> 꼽고있음
- => 결국 권한과 책임의 관점에서 지역주민들도 책임의식을 가지고 참여해야 함

지역사회 안전에 참여해야 할 자원역량마저도 분산되어 있음

- 정부의 컨트롤타워 역할 부재
- + 화재(소방), 교통(경찰), 식품(농림수산부, 식약청), 생활안전(행안부, 자치단체)
- 안전관련 소관 및 프로그램이 부처별, 기관별로 분산화되어 있음
- 지역사회 안전 관련 자원마저도 분야별, 단체별로 흩어져 있음

지역사회 안전역량 구축방향 및 주민참여 환경 조성

지역사회 주민참여형 안전역량 **각 분야별 안전역량 구축 자원**

- 하향식 관주도 방식에서 주민주도 방식으로 전환
 - + 관주도 중심의 안전정책의 한계
 - + 거버넌스 네트워크 구축 / 공공기관, 전문가, 지역주민 간 긴밀한 협조
- ⇒ 지역사회 차원의 안전 거버넌스 구축으로 통합적인 운영으로
지역사회 안전역량을 강화해야 함

지역사회 특성에 따른 **단계별 주민참여 환경 조성**

- 주민참여 여건 조성(제도적 측면), 사업발굴 등
- 주민이 주도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은 촉진자, 지원자 역할을 수행해야 함
- 적극적인 참여자와 소극적인 참여자를 구분하여 단계별로 적용함

지역사회 특성에 따른 단계별 주민참여 방안

|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
| 지역공동체 기반 | - 지역공동체 기반이 약한 경우 | - 지역공동체 기반이 형성된 경우 | - 지역공동체 활동이 활발한 경우 |
| 주민참여 형태 | - 여건조성 및 사업발굴 (인큐베이팅) | - 민관파트너십 -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역할 | - 주민 중심의 자율적 참여 |
| 주요활동 | - 주민모임 활성화 - 안전교육 및 홍보 - 지역안전리더 발굴·육성 - 안전위해요인 조사 및 발굴 | - 성공사례 공유 및 지역내 다양한 주체 간 협력 - 비용이 적게 들거나 사업추진이 비교적 용이한 소규모 핵심사업 추진 | - 안전관련 다양하고 종합적인 사업의 추진 및 전개 - 안전 이외의 지역이슈들과 결합하여 사업 추진 - 광범위한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

주민참여 및 역할

- 인프라 구축 / 공공부문이 주도하고 지역주민이 협조하는 방식
- 프로그램 / 주민이 주체(주민이 주도)가되고 공공부문이 협조하는 방식

사업영역과 대상에 따른 단계별 주민참여 방법

| 사업영역 | 프로그램 예시 | 활동 주체 |
|------------------------|--|----------------------|
| 여건조성 및 사업발굴 (인큐베이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모임의 장 마련 및 활성화(주민조직 결성) 안전교육 및 지역안전 리더 육성 재난 대응요령 훈련 홍보 및 행사(토론회, 전시회, 컨테스트 등) 지역안전 위해요인 조사발굴(주민의견조사, 지역사회 알아보기, 안전지도 만들기 등) | 주민이 주도하고 공공기관이 지원 |
|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개선 프로그램 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시/순찰활동(취약지역, 위해환경 감시 등) 안전지도/계몽활동 취약인구 돌봄서비스(독거노인, 영유아 등) | 공공기관 주도하고 주민이 협조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물 안전점검 / 진단활동(위험시설 등) 물자/자재보급(안전용품, 자동심장제세동기(AED)) 안전관리활동에 수반되는 장비 등 지원 개인시설이라 하더라도, 공익적 복지적 성격이 강한 사업 | |

공공기관 주도 지역주민 협조영역

공공기관 주도 지역주민 협조영역

- 인프라 구축(도로, 교통, 조명, CCTV, 홍보안내도, 위험지구 개선 등)
- 안전취약 지역 생활환경 개선사업
- 안전프로그램에 대한 전폭적인 인적, 물적 지원
-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통합네트워크 구축
- 지역사회 안전관련 각종 제도정비(조례 제개정 등)
- 주민참여 활동 관련 보험가입 등 행정지원
- 안전관련 동아리 지원 및 경연대회 개최
- 안전마일리지제도 운영(보상, 포상제도 등과 연계)
- 안전관련 정보공유 및 지속적인 주민참여 정책 발굴

지속성 확보위해 단체장의 의지, 사회적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

- 담당 부서 및 전담인력 배치, 관련예산 편성 지원
- 공공기관의 지원과 개입은 주민참여를 위한 최소한의 수단

주민주도 공공기관 협조(단계별)

주민주도 공공기관 협조 영역

- 1단계
 - + 자율적인 주민조직(김사단 등) 만들기(기존 자생조직 및 주민참여)
 - +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
 - + 지역사회안전 관련 협약추진(거버넌스 구축)
 - +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설문조사 추진
- 2단계 – 실천(행동)
 - + 취약지역 순찰 및 감시활동
 - + 등하곶이길 안전지도 만들기 및 홍보
 - + 여성안심귀가 도우미 활동
 - +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돌보미 활동
 - + 지역사회 안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제시
 - + 대응요령 등 각종 안전관련 교육실시 – 지역안전리더 육성 등
- 3단계 – 평가 및 개선
 - + 안전마일리지 제도 운영(보상, 포상제도 등과 연계)

주민참여형 지역사회 안전역량
구축을 위한 각 영역별 방안

학교에서의 아동 안전 대책

| | |
|----------------|--|
| 목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및 등하교길 등에서의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 |
| 범위 및 대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안전자원, 유치원, 학교(초,중,고), 아동관련 복지시설까지 포함 |
| 구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복지시설), 학교운영위원회, 경찰, 지역주민(교통안전, 방법 등)과의 유기적인 <지역사회안전 네트워크 구축> ▪ 학교단위마다 위원회 구성하여 관련정보공유, 안전관리 및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 비상연락망 가동 등 ▪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활동점검 등 |
| 활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이고 깊이있는 안전교육 실시 ▪ 사고발생시 대응방법, 피난유도, 응급조치 등 ▪ 거동수상한자의 학교출입 금지(아동과의 조우를 원천봉쇄) ▪ 왕따 및 학교폭력 예방활동 ▪ 통학길 안전 대책(교통안전 지도, 범죄예방) 활동(시설점검, 순찰 등) ▪ 학교 등 시설 및 설비의 정기적 점검 ▪ 교통안전 시설 요구, 가로등, 비상벨, CCTV 등 점검활동 ▪ 기타 각종 의견 취합 및 제보 |

주거지 및 생활 안전 대책

| | |
|----------------|--|
| 목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지에서의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 |
| 범위 및 대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부녀회, 자생조직 등 |
| 구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생활 안전 관련 공공부문과 민간단체, 전문가 간 네트워크 구축 ▪ 재난, 범죄, 교통, 식품 등의 안전관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각종 법(조례)과 제도 제정 ▪ 상대적으로 교통, 범죄관련 대응보다 화재,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저조 |
| 활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 공원, 주차장 등의 각종 시설개선을 통해 지역사회 위험요인을 사전에 억제하는 일련의 활동(구조변경, 운영방식 변경, 가로등설치, CCTV설치, 보도분리 등 교통안전시설 확충, 비상벨, 가스관 형광페인트 칠, 범죄예방환경설계 요구 등) ▪ 행동지침 등 각종 제도정비를 통해 도로, 주차장, 각종 시설 관리책임자의 안전책임성 확보 ▪ 취약지역 및 취약계층에 대한 정기적인 순찰 및 확인 등 ▪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관련 정보의 공유 등 ▪ 취약지역 및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예방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안전확보를 위한 각종 조례 제개정 활동 |

재난, 재해 안전 대책

| | |
|----------------|---|
| 목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함 |
| 범위 및 대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지방자치단체-지역주민 모두가 대상 |
| 구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난, 재해 관련 대책은 주로 공공기관 주도로 구성 운영되고 있음 상대적으로 다른안전분야에 비해 민간자원은 취약한 편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 조례를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도입운영하고 있음 |
| 활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난, 재해 예방활동을 위한 모니터링, 감시단 운영 사고발생시 현장 구조, 구급 등 지원활동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사고의 원인조사, 피해규모조사, 응급복구, 피해보상 등의 활동 문제는 다른 분야와 달리 재난, 재해 안전대책의 경우, 주민참여에 의한 예방 및 안전확보 방안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따라서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새로운 민간자원을 확보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참고문헌>

- 강희영(2015). <여성, 안전한가 - 교육 및 정보욕구 높지만, 재난재해 대처능력 떨어져>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김동영(2015).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4대전략> 경기연구원.
- 이주호(2015). <주민생활 안전을 위한 주민중심 지역만들기 정책 개선방안>. 한국위기관리학회,
한국위기관리논집 제11권 제2호 ; 299~321.
- 신상영(2013). <주민참여형 안전마을 만들기>. 서울연구원.
- 신상영(2014). <서울형 안전도시 모델 모색>. 서울연구원.
- 한세익(2016). <지역문제 해결의 Co-creation 접근 - 안전도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연구 제30권 제1호 ; 225~25.
- 행정안전부(2016년도 안전백서)

* 본 주제발제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터넷 검색 통해

관련 자료와 사진을 수집 활용했음을 사전에 밝힙니다.



지정토론

1. 충남 의용소방대 마을담당제

..... 곽봉식(의용소방대 흥성연합회장)

2. 적십자와 충남도가 함께 걸어온 길

..... 최용영(대한적십자사 흥성지구회장)

3.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활용방안

..... 이진수(충청남도 재난대응과장)

4. 재난·재해·구조 및 예방에 해병전우회 활용 방안 김광종(해병대전우회 충남연합회 부회장)

5. 충남의 안전비전2050의 효율적 실행을 위한 민관협력 방안 박근오(충남연구원 재난안전연구센터장)

6. 재난대응 강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민관협력 방안 김겸훈(한남대학교 교수)

지정토론

- ☞ **충남 의용소방대 마을담당제** 33
곽봉식(의용소방대 흥성연합회장)

- ☞ **적십자와 충남도가 함께 걸어온 길** 41
최용영(대한적십자사 흥성지구회장)

- ☞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활용방안** 55
이진수(충청남도 재난대응과장)

- ☞ **재난·재해·구조 및 예방에 해병전우회 활용방안** 63
김광종(해병대전우회 충남연합회 부회장)

- ☞ **충남의 안전비전2050의 효율적 실행을 위한 민관협력 방안**·· 71
박근오(충남연구원 재난안전연구센터장)

- ☞ **재난대응 강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민관협력 방안** ... 77
김경훈(한남대학교 교수)

충남 의용소방대 마을담당제

충남 의용소방대 홍성연합회장

곽 봉 식

의용소방대 마을담당제



충청남도소방본부

말씀드릴 순서

- ✓ 의용소방대 마을담당제 추진 배경
- ✓ 의용소방대 마을담당제란?
- ✓ 추진 과정 및 실적
- ✓ 맺음 말

✓ 의용소방대 마을담당제 추진 배경

추진배경

- ▶ 지역재난안전 중추 봉사조직으로서 **역할 재확립 필요**
- ▶ 의용소방대 역사 및 정신을 이어갈 **발전방안 모색 시기 도래**
- ▶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여 **독자적 활동영역 발굴**
- ▶ 타 단체와 차별화된 안전봉사단체로서 **정체성 확립**
- ▶ **다양한 사기진작 시책**으로 대원으로서 자긍심 고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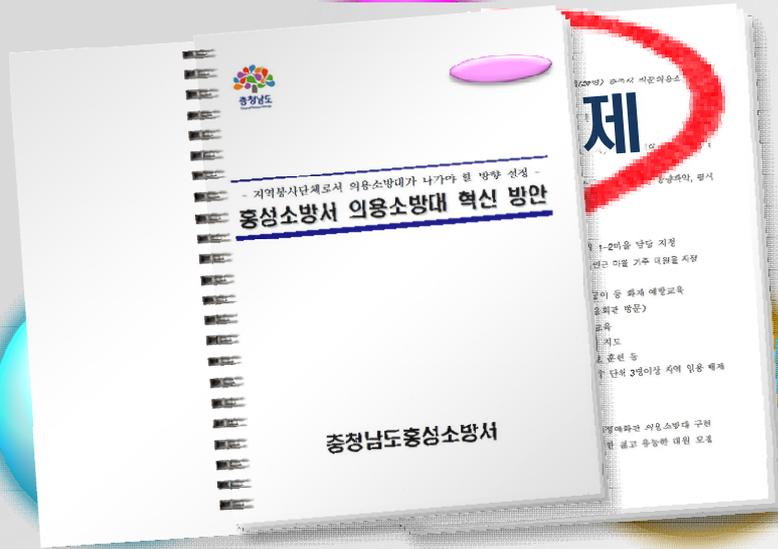
✓ 의용소방대 마을담당제 추진 목표

추진목표

- ▶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열심히 활동하는 의용소방대 실현**
- ▶ 어떤 재난이든 대응 가능한 **전문가적 의용소방대 양성**
- ▶ 거버넌스 행정의 주력으로서 **주민 속의 의용소방대 구현**
- ▶ 순수봉사단체로서 모범이 되는 **의용소방대 실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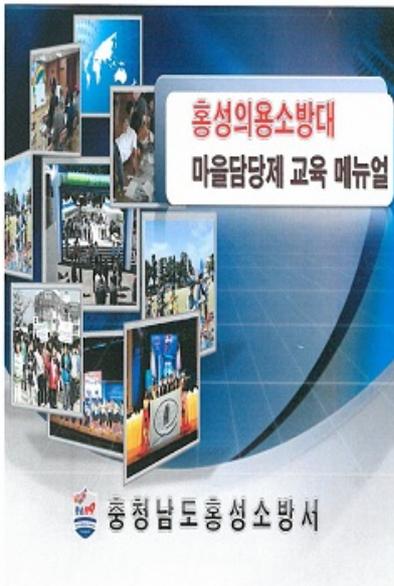
주민들로부터 신망받고 존경받는 의용소방대

✓ 의용소방대 마을담당제 추진 배경



마

- ▶ 의용
- ▶ 마을



| 목 차 | |
|-----|--------------------------|
| 1 | 소화기 사용법 1 |
| 2 | 심폐소생술 교육 4 |
| 3 | 화력보일러 안전교육 9 |
| 4 | 죽사화재 예방교육 12 |
| 5 | 가스관련 안전교육 15 |
| 6 | 중수해 대비요령 17 |
| 7 | 아파트 화재예방 교육 19 |
| 8 | 해빙기 안전관리 20 |
| 9 | 돌놀이 안전교육 21 |



소년가장



교육메뉴얼

▶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369개대 8,784명

▶ 대원 3~4명씩 2~3개 마을 담당(4,492리)



▶ 담당마을을 방문하여 할 일은?



마을회관 방문



각 가정 전기, 가스, 화재취약요인 점검



소화기 교육



CPR 교육



화목보일러 점검



담당마을 명패



포스터 부착



교육매뉴얼

2. 흥성의용소방대 기본현황

① 목적 : 소방관서의 화재 구조 구급활동 보조(의소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② 대수 및 인원 현황

| 구 분 | 총 괄 | | | | 전담의용소방대 | | |
|--------|-----|-----|-----|----|---------|-----|----|
| | 계 | 남성 | 여성 | 혼성 | 계 | 남성 | 혼성 |
| 대 수(대) | 24 | 13 | 11 | - | 6 | 6 | - |
| 현 원(명) | 529 | 328 | 201 | - | 147 | 147 | - |

③ '16년도 활동실적

| 구 분 | 계 | 화재·구조·구급 활동 지원 | 훈련·예방·홍보 | 순찰·경계 근무 | 대민봉사 등 |
|---------|--------|-------------------|----------|----------|--------|
| 횟 수(회) | 1,628 | 132 | 763 | 516 | 337 |
| 인 원(명) | 12,031 | 1,028 | 7,255 | 1,546 | 2,202 |
| 활동비율(%) | 100 | 8.5 | 60.3 | 12.9 | 18.3 |

✓ 추진 실적

(기간 : 2016. 03. 01 ~ 12. 31)

| | |
|------|----------|
| 구 분 | 마을담당제 활동 |
| 활동횟수 | 1,032회 |
| 활동인원 | 5,152명 |
| 활동시간 | 12,735시간 |



2. 충남의용소방대 기본현황

① 목적 : 소방관서의 화재 구조 구급활동 보조(의소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② 대수 및 인원 현황

| 구 분 | 총 괄 | | | | 전담의용소방대 | | |
|--------|-------|-------|-------|----|---------|-------|----|
| | 계 | 남성 | 여성 | 혼성 | 계 | 남성 | 혼성 |
| 대 수(대) | 369 | 224 | 144 | 1 | 99 | 98 | 1 |
| 현 원(명) | 8,784 | 5,752 | 3,002 | 30 | 2,453 | 2,423 | 30 |

③ '17년도 상반기 활동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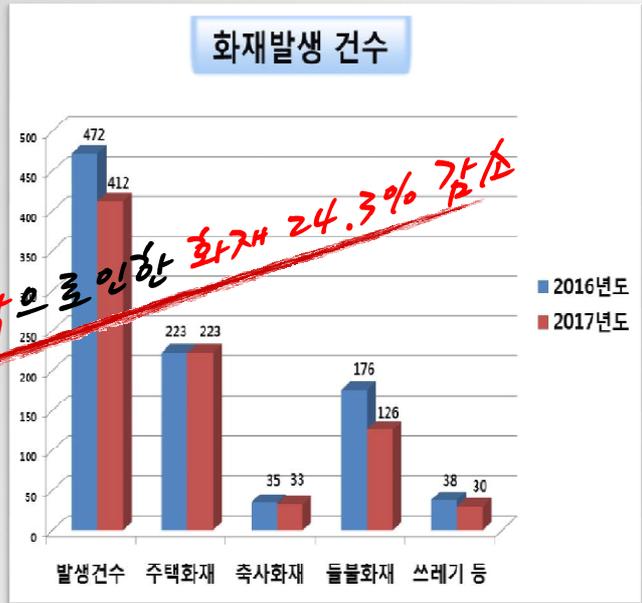
| 구 분 | 계 | 화재·구조·구급 활동 지원 | 훈련·예방·홍보 | 순찰·경계 근무 | 대민봉사 등 |
|---------|--------|-------------------|----------|----------|--------|
| 횟 수(회) | 14,729 | 2,178 | 3,550 | 6,947 | 2,054 |
| 인 원(명) | 92,146 | 19,645 | 45,281 | 16,611 | 10,609 |
| 활동비율(%) | 100 | 21.3 | 49.1 | 18.1 | 11.5 |

▶ 충남 마을담당제 활동 성과

(기간 : 2017. 1. 1 ~ 6. 30)

| 구 분 | 활동실적 |
|------|-----------|
| 활동횟수 | 11,848회 |
| 활동인원 | 61,914명 |
| 활동시간 | 187,342시간 |

쓰레기,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화재 24.3% 감소



✓ 추진 경과

16년 12월

의용소방대 마을담당제 추진성과 워크숍 개최(12. 15 ~ 16 / 1박2일)

- 부대장이상 간부대원 참석
- 각 의용소방대별 운영 및 수범사례 발표(ppt)

16년 12월

마을담당제 보완사항 및 개선사항 검토

- 미비점 및 보완사항 시정

17년 2월

충청남도 전체 의용소방대 확대 시행

- 충남 전체 소방관서 전파
- 현재 15개 시·군지역 각 의용소방대 마을담당제 시행 중



적십자와 충청도가 함께 걸어온 길

대한적십자사 홍성지구회장

최 용 영

Saving Lives,
적십자는
생명입니다

적십자의 탄생과 인도주의 실천을 향한 발걸음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홍성지구협의회

Saving Lives,
적십자는
생명입니다

목 차

1. 국제적십자 운동
2. 대한적십자사 사업소개
3. 홍성지구협의회 봉사활동 현황

1. 국제적십자 운동



<장앙리뒤낭>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빈곤과 질병에 시달린다면 남은 것은
어쩔 수 없는 괴로움 뿐일 겁니다. 저는 불행이란 말의 뜻이
바로 이런 것이라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손을 맞잡아 줄 때 불행도 없앨 수 있습니다.”

1. 국제적십자 운동

국제적십자 운동의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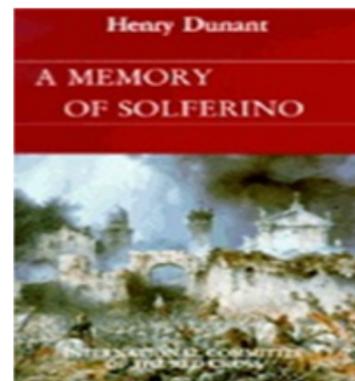
장 앙리 뒤낭, '솔페리노 전투' 목격 후 『솔페리노의 회상』 저술

- 평시에 자원봉사원들로 구성된 구호단체 설립
- 구호단체의 존재, 인도적 활동을 보장하는 신성 불가침한 국제조약 체결 제안

→ 스위스 제네바협약으로 국제적십자 운동 시작



<제네바협약 원본>



전쟁의 참상을 세상에 알린 『솔페리노의 회상』

1. 국제적십자 운동

세계 최고의 인도주의 기구

노벨평화상 4회 수상, 1억명 의 자원봉사자 활동
전세계 190개국 과 함께하는 적십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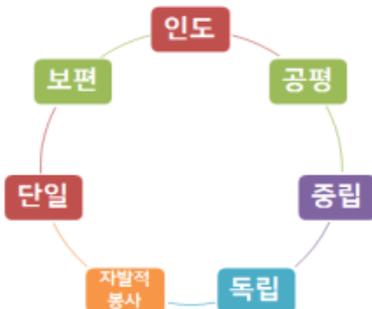
적십자 표장



1. 국제적십자 운동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

- 국제적십자운동의 세 구성기구인 각국의 적십자사, ICRC, 국제적십자사연맹을 통합하고 이끄는 공동의 가치
- 국제적십자운동 구성기구가 취하는 모든 인도적인 활동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이며 행동원칙



- 인도 :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장한다
- 공평 : 국적, 인종, 종교적 신념, 계급 또는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고 차별하지 않는다.
- 중립 : 정치적, 인종적, 종교적 또는 이념적 성격을 띤 논쟁에 개입하지 않는다.
- 독립 : 국내 법규를 준수하지만 어느 때든지 적십자 원칙에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항상 자율성을 유지해야 한다.
- 자발적 봉사 : 자발적 구호운동으로서 어떤 이익도 추구하지 않는다.
- 단일 : 한 나라에는 하나의 적십자사만 존재할 수 있다.
- 보편 : 각 나라의 적십자사들이 동등한 지위와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서로 돕는다.

2. 대한적십자사 사업소개



구호활동

재난으로부터 생명을 구하고, 고통과 피해를 감소시키며, 재난 이후 지역사회 복구활동을 통해 이재민을 보호, 지원한다.

사회봉사

수만 명의 자원봉사원과 회원으로 조직된 훌륭한 네트워크를 통해 취약계층을 위해 봉사하며, 인도적이고 평화로운 세상을 위하여 활동한다.



청소년적십자 RCY

청소년적십자(RCY) 활동은 범세계적인 청소년 단체로, 4대 활동 목표인 건강과 생명의 보호·봉사·친선·적십자 이념 보급활동을 통하여 적십자 인도주의와 봉사정신을 배우고 실천하여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향상하고 인성 발달을 도모한다.

안전교육

국민들이 응급처치법, 심폐소생술, 수상안전법, 산악안전법 과정의 참여를 통하여 자신은 물론 가족, 친구, 이웃의 생명을 구하는 데 필요한 안전지식 보급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 대한적십자사 사업소개

가. 구호활동

- 재난구호 : 재난현장 구호품 전달 및 복구 봉사활동



<2017.7 천안 수해피해 복구활동>

2. 대한적십자사 사업소개

가. 구호활동

- 재난구호훈련 : 재난대비 종합 훈련



<2017.6.22 지진발생에 따른 재난구호 종합훈련>

2. 대한적십자사 사업소개

나. 사회봉사



무료급식소 운영



홀몸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



취약계층 반찬나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2. 대한적십자사 사업소개

나. 사회봉사

희망풍차: 결연활동을 통한 소외계층 지원 프로그램



2. 대한적십자사 사업소개

다. 청소년적십자 RCY

봉사활동, 수련회와 캠프, 국제교류 프로그램 등



<2017.7 ~8 한·일 청소년 적십자 단원교류>



<2017.8 청소년적십자 하계캠프>

2. 대한적십자사 사업소개

라. 안전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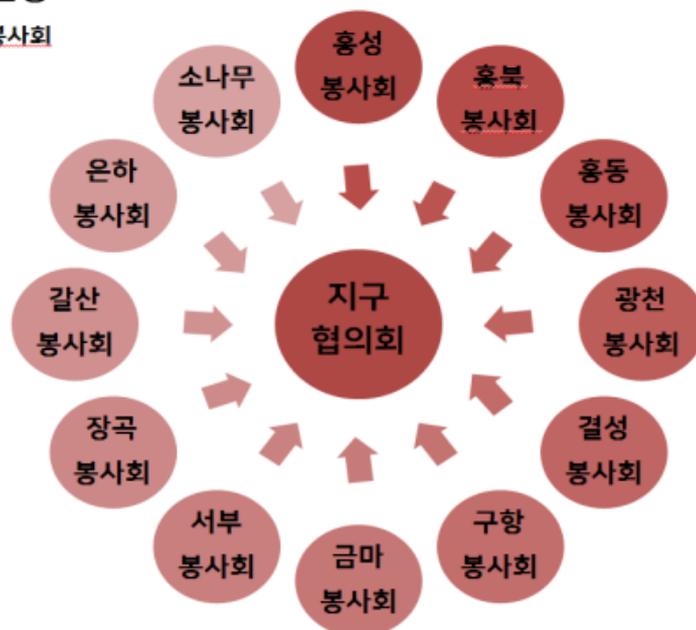
응급처치법, 심폐소생술, 수상안전법 등 교육



3. 흥성지구협의회 봉사현황

- 봉사회 현황

12개 단위봉사회



3. 흥성지구협의회 봉사현황

- 봉사회 활동



- 무료급식, 밑반찬 나눔, 김장나눔, 빵나눔
- 베품시장, 바자회, 일일찻집

- 희망풍차
- 조손, 청소년 장학금·교복 전달
- 집수리, 의료봉사, 목욕봉사, 이미용 봉사 등



3. 흥성지구협의회 봉사현황

- 봉사회별 활동현황

| 봉사회 명 | 특이활동 내용 |
|--------|---|
| 지구협의회 | 무료급식, 베품시장, 바자회, 조손, 청소년 간식 및 장학금 교복전달, 빵나눔 |
| 흥성봉사회 | 흥성을 밑반찬, 장애인목욕봉사, 희망풍차, 자연보호활동, 헌혈봉사 |
| 홍북봉사회 | 홍북면 밑반찬, 바자회, 희망풍차, 빵나눔 |
| 홍동봉사회 | 홍동면 밑반찬, 바자회, 희망풍차 |
| 광천봉사회 | 광천읍 밑반찬, 바자회, 희망풍차, 빵나눔 |
| 결성봉사회 | 바자회, 희망풍차 |
| 구항봉사회 | 장학금, 바자회, 희망풍차 |
| 금마봉사회 | 김장나눔, 바자회, 희망풍차 |
| 서부봉사회 | 바자회, 희망풍차 |
| 장곡봉사회 | 일일찻집, 바자회, 희망풍차 |
| 갈산봉사회 | 바자회, 희망풍차 |
| 은하봉사회 | 바자회, 희망풍차 |
| 소나무봉사회 | 집수리, 의료봉사, 목욕봉사 |

Saving Lives,
적십자는
생명입니다



적십자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입니다.

- 알버트 슈바이처 -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활용방안

충청남도 재난대응과장
이진수



순서

- 1 재난관리체제의 이해
- 2 민간재난대응조직 역량강화 계획
- 3 지난해 추진실적
- 4 개선방안
- 5 '17년 민관협력 추진 상황 및 계획

1. 재난관리체제의 이해

● 재난현장대응.수습체계 표준편제(한국형 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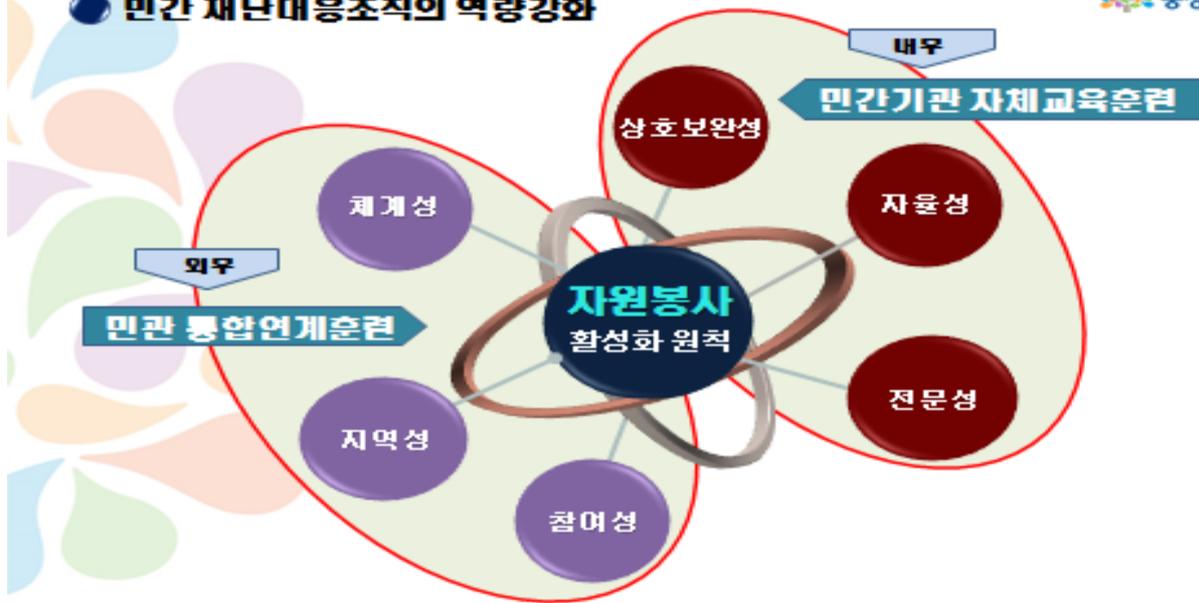
1. 재난관리체제의 이해

● 재난현장 지휘.협력체계 표준안(한국형 ICS)



2. 민간재난대응조직 역량강화 계획

● 민간 재난대응조직의 역량강화



3. 지난해 추진실적

● 민간단체 기능별 전문교육

| 주관 | 사회심리복지교육 | 재해구호, 응급처치교육 | 아마주어우선교육 |
|------|-------------------------|--------------------------------|---------------------------|
| 주관 | 충남재난심리지원센터 |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 | [사]아마주어우선연맹 |
| 대. 곳 | 9.20~9.30/ 4회 | 구호과정 11.23. 응급처치과정 11.24~25 | 10.18, 10.20/ 2회 |
| 규모 | 93명 | 48명(구호18, 응급처치30) | 84명 |
| 내용 | 재난피해자에 대한 지지적 의사소통방법 | 구호활동, 심폐소생술 등 | 비상시 도내 광역통신망 구축 및 운영훈련 |



3. 지난해 추진실적

● 민간단체 자체 역량강화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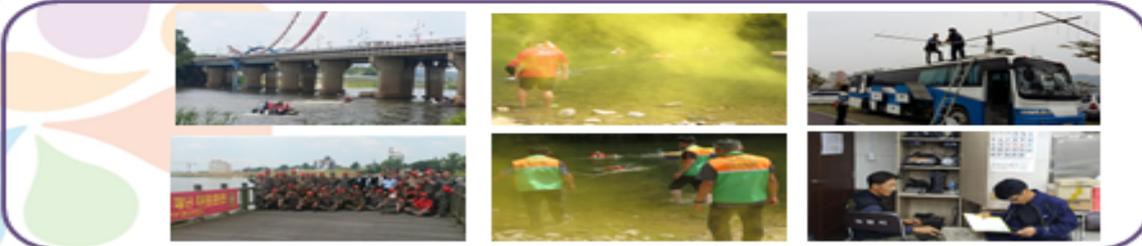
| | | | |
|---|--|--|--|
| 교육명 대. 곳 규모 내용 | 대한적십자사 증남지사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인명구조, 산악안전, 구호교육 연중 | 증남 자율방재단 방재단 직무능력강화교육 11.21~11.22/ 전안 36명 우선교육, 응급처치, 지진대응요령 등 | 아마주어우선연맹 연맹 직무능력강화 교육연회 12.17~12.18/ 태안 50명 전파원, 비상주파수 유효범 및 긴급무선통신망 설치 실습 |
| | 3,000명 | | |
| | 적십자사와원봉에 대한 안전, 구호 등 전문교육 | | |
| | | | |



3. 지난해 추진실적

● 민간단체 기능별 자체훈련

| | | | |
|---|--|--|---|
| 주 관 대. 곳 규모 내용 | 유도선 사고훈련 [사]해령대전우회 6.26/ 무이군 1개 단체(220명) 유도선 전복사고에 따른 인명구조훈련 | 수난구조훈련 119시민수상구조대 7.28/ 정양군 7개 단체(100명) 읍농어 지역의 응급처치 교육 및 수난구조훈련 | 긴급통신지원훈련 [사]아마주어우선연맹 9.25/ 15개 시군 1개 단체(50명) 비상시 도내 광역통신망 구축 및 운영훈련 |
| | | | |
| | | | |
| | | | |



3. 지난해 추진실적

● 민관 통합연계 훈련

- 주 관
- 대 . 곳
- 규 모
- 내 용

| | | |
|--|--|---|
| 재독시설 재난훈련 도, 아산시, 아산소방서 8.29/ 아산시 24개 기관 (584명) 17개 단체, 기관 254명 참여 전국재난 대응체계 민관군 합동훈련 | 다중이용시설 재난훈련 도, 전주시, 삼척리조트 11.8/ 전주시 12개 기관 (250명) 시설직원 100명 참여 다중이용시설 종가에 따른 자위소방대 매뉴얼 훈련 | 폭설 대응 훈련 도, 부여군, 자율방재단 11.30/ 부여군 6개 기관 (110명) 자율방재단 참여 25, 참관 30 폭설로 인한 자당중중 사고저지 교통중재 훈련 |
|--|--|---|



3. 지난해 추진실적

● 재난안전 예방 활동

- 주 관
- 대 . 곳
- 규 모
- 내 용

| | | |
|---|--|--|
| 환경정화 캠페인 자율방재단 7.28/ 정양군 7개 단체 (100명) 등놀이 안전사고예방 및 환경보호 캠페인 | 환경정화 캠페인 [사]애병대전우회 10.30/ 논산시 1개 단체 (150명) 강, 하천 수중정화 및 환경보호 캠페인 | 겨울철 안전캠페인 보건복지부, 도, 공주시 11.6/ 공주시 6개 단체 (200명) 안전신문고의원, 자율소방대 겨울철 안전 가드 캠페인 및 취약시설 안전점검 |
|---|--|--|



3. 지난해 추진실적

● 기타 활동 사례

| | |
|---|--|
| <p>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의 재난대비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마철 대비 구호품 준비 - 6.22/ 옥시강사 • 지진발생시 재난구조훈련 - 9.7/ 대전시청 • 산악 안전 교육 중 실제 급류 동산역 구조 - 6.12/ 태백산 | <p>녹색어머니회, 모범은전자회의 예방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안전캠페인 - 교통안전과 배려봉사단 • 보행자 및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 안전지도자 양성과정, 안전교육 • 생활안전지도자 양성과정 수료 • 소방안전총서 및 각종 안전교과 |
| <p>충남 자율방재단의 수습복구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빙기 안전 및 재난취약 지역 예방 활동 - 3.8/ 서산 • 태풍 '차바' 피해 지역 피해복구 봉사활동 - 10.14~18/ 서산 | <p>충남 의용소방대의 재난대응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용소방대 실증자 발견 - 10.04/ 서산군 • 돌봄 예방대책추진 - 순창군, 어르신 게르출동 • 의용소방대 혁신전진대회 - 9.27/ 홍성시 |

4. 개선방안

● 민관협력체제구축 및 역량강화

- 민관협력강화활동의 고도화 단계 추진 필요
- 민간재난조직의 전문재난교육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
 - 자원봉사 협업기능, 자원봉사자의 역할 등 교육 및 토론 활성화
- 충남재난특성에 부합한 맞춤형 전문교육 필요
- 제도적 민간참여 재난대응체제 정립 요구
 -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활성화 (년 4회 개최)
 - 주요재난선정 및 시나리오공유 (각 시군별 워크숍 실시)
- 민관 재난통합연계 및 기능별 훈련체제 정립

민간 재난조직의 맞춤형 특성화, 역량강화를 통한 민관통합재난대응체제 구축

5. '17년 민관협력 추진 상황 및 계획

● 민관협력체제 구축 및 역량강화

1

- 제2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17. 4월)
- 위촉장 수여, 17년 민관 협력 활성화 방안 및 협의

2

- 민간단체 기능별 전문교육('17. 3~11월)
 - 아마추어무선교육 ※ (사)아마추어무선연맹 충남본부
 - 상반기 : 95명(4월), 하반기 : 90명(9월 예정)
 - 재난안전보급 ※ 순해보급협회 중앙지역본부
 - 상반기 : 39명(4월)
 - 심리적지지 ※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
 - 상반기 : 33명(5월), 하반기 : 25명(10월 예정)
 - 응급처치 ※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
 - 상반기 : 324명(수시), 하반기 : 112명(수시)
 - 재난체험교육 ※ 한서대학교
 - 하반기 : 150명(11월 예정)

5. '17년 민관협력 추진 상황 및 계획

● 민관협력체제 구축 및 역량강화

3

- 재난대비 민간단체 기능별 훈련 및 교육('17. 9~10월)
 - 수난사고 인명구조 훈련(2회) ※ (사)해병대전우회
 - 때 . 곳 : 1차) 9.3(일), 부여 백마강, 160명 참여 / 2차) 10월 예정
 - 민간단체 초등 대처훈련을 통한 위기상황 대응역량 강화
 - 아마추어무선연맹 긴급통신 지원훈련 ※ (사)아마추어무선연맹
 - 때 . 곳 : 10월 예정, 충남도청 및 15개 시군청
 - 긴급통신지원 민간단체와 상시 긴급통신 협력체계 구축으로 재난 즉시 대응태세 확립

4

- 민관 통합 연계 훈련('17. 9월, 10월)
 - 저수지붕괴 재난대비 훈련
 - 때 . 곳 : 9.13(수) / 예산군 무한천 일대
 - 대규모 재난에 대비한 민관 통합 종합훈련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 때 . 곳 : 10.30(월) ~ 11.3(금) 5일간 / 도, 15개 시군
 - 대규모 재난대비 전 기관 실전 현장훈련 실시



감사합니다

재난·재해·구조 및 예방에 해병전우회 활용방안

해병전우회 충남연합회 부회장

김 광 종

1. 서 론

스쿠버장비 및 산악용 레펠 등 기본적인 재난, 재해 구호 및 예방을 할 수 있는 장비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 및 지회의 특성에 맞게 일반 봉사활동 및 재난, 재해 구호예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해병전우회는 자생 발전된 단체로서 현재 비영리 법인단체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빨간명찰, 팔각모, 동질성을 공감할 수 있는 선후배들끼리 계모임 형태로 70~80년대 친목단체로 활동해 왔습니다.

그러나 모임자체도 중요하지만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뜻있는 일을 하고자 생각하고 80년대 중반부터 지역사회의 구석구석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가리지 않고 시민을 위하고 내 고장을 위한 일을 해왔습니다.

지역환경정화, 우범지역 야간순찰 등을 하다 보니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받자 119가 활성화 되지 않은 시절에는 일부긴 하지만 119의 역할 및 보조할 수 있는 봉사활동으로 발전했습니다.

- 바다, 강, 하천에서의 수난구조 및 예방활동
- 자연보호 일환으로 수중 정화활동
- 차량의 증가로 지역사회 곳곳이 차량통행이 어려운 곳이 많다보니 교통봉사 등 시민들과 지역사회를 위한 일이라면 굶은일 마다하지 않고 다양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예방을 위한 활동까지 다방면에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전국 어느 축제장에 가든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사장에 가보면 빨간티에 얼룩무늬 복장으로 해병전우회 회원들을 흔히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봉사활동도 마음과 투지로만은 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사무실도 없이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하다가 인력이 늘어나고 장비가 생기다보니 사무실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래서 일부 전우회에서는 선배님들이 부지를 제공하고 회원들의 성금으로 사무실을 신축하여 사용하는 곳도 있지만 컨테이너 사무실로 시작하여 아직도 컨테이너 사무실을 벗어나지 못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이나 장비가 워낙 고가라서 그동안 회원들이 십시일반 협조하고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 유지해왔지만 최근에는 이런 모든 지원이 없다보니 어려움이 많습니다.

2. 해병대 전우회의 현실

해병대!

해병대전우회!

그 이름만 들어도 믿음이 가고 충성스럽고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미지로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이제는 각인되어 있습니다. 일부 일탈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신뢰받고 있는 봉사단체 중 하나라고 생각하며 지자체로부터 최소한의 지원도 받을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그 동안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근근히 꾸려나갔는데 봉사단체들이 많이 생기다보니 정부나 지자체에서 봉사단체 관리하기가 힘든 현실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현역시절 같고 닦은 실력을 국민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재난, 재해 구조예방을 위하여 봉사하겠다는 단체는 과연 몇 개나 될까요?

정치적 성향에 따라 만들어지는 봉사단체가 아니고 오직 열정과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하여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는 단체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지자체에서 사무실 보수, 장비보충/보수/구입 등으로 도움을 받고자 했을 때 해병전우회는 도와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매번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단체의 형평성 때문에 힘들다고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봉사단체라는 것은 같지만 그대로 해병전우회는 특색 있는 재난, 재해 구조 및 예방 자원 및 장비가 많은 단체인데 그런 것을 인정해 주지 않고 단순비교로 일축하고 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국가 예산으로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인명을 구조하고 재난을 대비할 수 있는 단체라는 것을 명심하셔서 해병전우회를 법적으로 양성화시키고 활성화 할 수 있는 지원 조례 등 법적 제도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남은 산, 강, 바다를 끼고 있는 곳입니다. 해병대는 육지, 바다, 하늘 어느 곳 에서나 전투할 수 있게끔 훈련된 군인들입니다.

따라서 해병전우회 회원들은 기본적인 교육을 모두 받고 전역하여 민간인으로 복귀하여 전우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어느 단체보다 재난, 재해 및 구조예방에 필요한 양질의 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자발적으로 봉사를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한 단체입니다. 이 양질의 자원을 정기적으로 교육 및 장비정비 등의 최소한의 지원이 있다면 지자체의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해병대 전우회 충남연합회에서는

- 바다, 강, 하천 인명구조 및 의사자 수색작업 및 지원(119)
- 산악 산불 및 인명구조 및 지원
- 교통봉사 및 행사지원

지역의 지형지물 지리 등을 숙지하고 있어 인명구조 및 예방, 교통정리 시 우회도로 등을 숙지하고 있어 더욱 더 효과적으로 임무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야간순찰, 학교폭력 근절 일환으로 우범지역 야간순찰 시행
- 스쿠버 장비 및 구명보트 이용 바다, 강, 하천 수중자연보호활동

3. 바라는 점

두서없는 저의 의견

한마디로 요약하면 해병전우회는 어떤 재난, 재해 및 구호예방의 어떤 업무를 주더라도 해낼 수 있는 재원 및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니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기본적인 법적 조치를 해주셔서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병전우회 충남연합회 현황

- 15개 시군 지회 결성
(천안, 아산, 서산, 공주, 논산, 부여, 금산, 계룡, 서천, 태안, 홍성, 당진, 보령, 청양, 예산)
- 활동인원 : 2,500명
- 차량 및 장비 현황

충남연합회

| 차 량 | 차량명 | 연 식 | 승차인원 | 차량 No |
|-----|---------|------|------|----------|
| 차 량 | 그랜저 | 2008 | 5 | 52무 9266 |
| | 그랜드 카니발 | 2013 | 11 | 70가 9981 |
| | 마티즈 | 2010 | 4 | 41나 1724 |

아산지회

| 차 량 | 차량명 | 연 식 | 승차인원 | 차량 No |
|-----|---------|------|------|----------|
| 차 량 | 스타렉스 | 2008 | 15 | 77누 2677 |
| | 그랜드 카니발 | 2012 | 11 | 78나 7327 |

| 보 트 | 보트명 | 제조년도 | 마 력 | 크 기 |
|-----|--------|------|-----|------|
| 보 트 | 콤비 FRP | 2006 | 175 | 8.3m |
| | 고무보트 1 | 2008 | 90 | 6.0m |
| | 고무보트 2 | 2008 | 40 | 4.3m |
| | 고무보트 3 | 2002 | 50 | 4.3m |
| | 제트스키 | 2008 | 210 | 2.1m |

| 트레일러 | 보트사용명 | 크 기 | 트레일러축 | 비 고 |
|------|--------|------|-------|-----|
| 트레일러 | 콤비 FRP | 8.3m | 2 | |
| | 고무보트 1 | 6.0m | 1 | |
| | 고무보트 2 | 4.3m | 1 | |
| | 고무보트 3 | 4.3m | 1 | |
| | 제트스키 | 2.1m | 1 | |

| 견인차량 | 차량명 | 차량 No |
|------|-----|-------------|
| 견인차량 | 무쏘 | 충남 80다 4613 |
| | 무쏘 | 01주 5354 |
| | 무쏘 | 77소 1729 |
| | 코란도 | 94러 5950 |
| | 랭글러 | 충남 34마 5838 |

논산지회

| 차 량 | 차량명 | 연 식 | 승차인원 | 차량 No |
|-----|------|------|------|----------|
| | 스타렉스 | 2010 | 11 | 77루 2677 |
| | 액티언 | 2007 | 5 | 94서 6713 |

| 보 트 | 보트명 | 제조년도 | 마 력 | 크 기 |
|-----|--------|------|-----|------|
| | 콤비 FRP | 2012 | 150 | 6.5m |
| | 고무보트 1 | 2012 | 30 | 4.0m |

| 트레일러 | 보트사용명 | 크 기 | 트레일러축 | 비 고 |
|------|--------|------|-------|-----|
| | 콤비 FRP | 8.3m | 2 | |
| | 고무보트 1 | 6.0m | 1 | |

청양지회

| 차 량 | 차량명 | 연 식 | 승차인원 | 차량 No |
|-----|------|------|------|----------|
| | 스타렉스 | 2010 | 11 | 77부 5418 |

서산지회

| 차 량 | 차량명 | 연 식 | 승차인원 | 차량 No |
|-----|------|------|------|----------|
| | 스타렉스 | 2011 | 11 | 70가 9696 |
| | 테라칸 | 2009 | 5 | 33다 1755 |

| 보 트 | 보트명 | 제조년도 | 마 력 | 크 기 |
|-----|--------|------|-----|------|
| | 콤비 FRP | 2013 | 150 | 6.5m |
| | 고무보트 1 | 2009 | 50 | 5.0m |

| 트레일러 | 보트사용명 | 크 기 | 트레일러축 | 비 고 |
|------|--------|------|-------|-----|
| | 콤비 FRP | 6.5m | 1 | |
| | 고무보트 1 | 5.0m | 1 | |

공주지회

| 차 량 | 차량명 | 연 식 | 승차인원 | 차량 No |
|-----|------|------|------|----------|
| | 스타렉스 | 2008 | 11 | 74서 8578 |

| 보 트 | 보트명 | 제조년도 | 마 력 | 크 기 |
|-----|--------|------|-----|------|
| | 고무보트 1 | 2009 | 40 | 5.0m |

| | | | | |
|------|--------|------|-------|-----|
| 트레일러 | 보트사용명 | 크 기 | 트레일러축 | 비 고 |
| | 고무보트 1 | 5.0m | 1 | |

부여지회

| | | | | |
|-----|------|------|------|----------|
| 차 량 | 차량명 | 연 식 | 승차인원 | 차량 No |
| | 스타렉스 | 2010 | 11 | 77무 9206 |

| | | | | |
|-----|--------|------|-----|------|
| 보 트 | 보트명 | 제조년도 | 마 력 | 크 기 |
| | 고무보트 1 | 2013 | 50 | 5.0m |

| | | | | |
|------|--------|------|-------|-----|
| 트레일러 | 보트사용명 | 크 기 | 트레일러축 | 비 고 |
| | 고무보트 1 | 5.0m | 1 | |

홍성지회

| | | | | |
|-----|------|------|------|----------|
| 차 량 | 차량명 | 연 식 | 승차인원 | 차량 No |
| | 스타렉스 | 2011 | 11 | 70가 9768 |
| | 쏘렌토 | 2003 | 5 | 56더 1162 |

| | | | | |
|-----|--------|------|-----|------|
| 보 트 | 보트명 | 제조년도 | 마 력 | 크 기 |
| | 콤비 FRP | 2013 | 150 | 6.5m |
| | 고무보트 1 | 2008 | 30 | 4.0m |

| | | | | |
|------|--------|------|-------|-----|
| 트레일러 | 보트사용명 | 크 기 | 트레일러축 | 비 고 |
| | 콤비 FRP | 6.5m | 1 | |
| | 고무보트 1 | 4.0m | 1 | |

보령지회

| | | | | |
|-----|------|------|------|----------|
| 차 량 | 차량명 | 연 식 | 승차인원 | 차량 No |
| | 스타렉스 | 2008 | 11 | 77구 5536 |

예산지회

| | | | | |
|-----|------|------|------|----------|
| 차 량 | 차량명 | 연 식 | 승차인원 | 차량 No |
| | 스타렉스 | 2008 | 11 | 47로 2427 |

| | | | | |
|-----|-----|------|-----|-----|
| 보 트 | 보트명 | 제조년도 | 마 력 | 크 기 |
|-----|-----|------|-----|-----|

| | | | | |
|--|--------|------|----|------|
| | 고무보트 1 | 2008 | 30 | 4.0m |
|--|--------|------|----|------|

| | | | | |
|------|--------|------|-------|-----|
| 트레일러 | 보트사용명 | 크 기 | 트레일러축 | 비 고 |
| | 고무보트 1 | 4.0m | 1 | |

당진지회

| | | | | |
|-----|------|------|------|----------|
| 차 량 | 차량명 | 연 식 | 승차인원 | 차량 No |
| | 스타렉스 | 2010 | 11 | 71고 6097 |

| | | | | |
|-----|--------|------|-----|------|
| 보 트 | 보트명 | 제조년도 | 마 력 | 크 기 |
| | 고무보트 1 | 2010 | 50 | 5.0m |

| | | | | |
|------|--------|------|-------|-----|
| 트레일러 | 보트사용명 | 크기 | 트레일러축 | 비 고 |
| | 고무보트 1 | 5.0m | 1 | |

천안지회

| | | | | |
|-----|------|------|------|----------|
| 차 량 | 차량명 | 연 식 | 승차인원 | 차량 No |
| | 스타렉스 | 2004 | 11 | 77소 2880 |

| | | | | |
|-----|--------|------|-----|------|
| 보 트 | 보트명 | 제조년도 | 마 력 | 크 기 |
| | 고무보트 1 | 2003 | 60 | 5.0m |

| | | | | |
|------|--------|------|-------|-----|
| 트레일러 | 보트사용명 | 크 기 | 트레일러축 | 비 고 |
| | 고무보트 1 | 5.0m | 1 | |

충남의 안전비전 2050 효율적 실행을 위한 민관협력 방안

충남연구원 충남재산안전센터

센터장 박근오

1. 재난·안전 환경과 여건 변화

- 2011년 11월 국립기상연구소(현 국립기상과학원)에서는 전 지구적 기후변화로 인해 한반도에서도 기후변화가 진행되어 자연재난의 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기상청은 「한반도 기후변화 전망보고서(2012)」를 통해 한반도 미래 기후변화를 전망하면서 온난화 경향이 2100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기도 하였음

〈자연재난 요인별 전 지구적 기후변화와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추이〉

| 구분 | 전 지구 | 우리나라 |
|----|-------------|---------------|
| 기온 | 2.8~4.8℃ 상승 | 3.0~5.6℃ 상승 |
| 강수 | 4.5~6.0% 증가 | 15.8~18.7% 증가 |
| 호우 | 빈도 1.6배 증가 | 빈도 3배 증가 |
| 폭염 | 빈도 1.9배 증가 | 빈도 3.2~7배 증가 |

※자료 : 국립기상연구소, 2011.11월

- 이처럼 기후변화로 인하여 집중호우, 홍수·침수, 폭설 등과 같은 자연재난이 예기치 못한 시기에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예방 및 대비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음
- 사회의 고도화 및 도시화·산업화가 급속하게 진전됨에 따라 화재, 붕괴, 교통사고, 환경오염사고 등과 같은 사회재난에 의한 피해와 불안감이 점차 커지고 있음

* 재난의 유형 및 피해규모가 더욱 복잡화·다양화·대형화 되어가고 있어 지역의 안전 확보가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

2. 충남의 지역안전 실태와 개선의 필요성

- 2015년 발표된 지역안전지수 결과에서 충남은 4등급 3개, 3등급 4개로 전반적으로 부진하였으며, 2016년에는 4등급이 4개, 3등급이 3개로 전년

도에 비해 부진

- * (구)국민안전처(현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자체마다 지역안전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할 목적으로 2015년부터 전국 광역·기초지자체별 지역안전지수를 공개하고 있으며, 대상분야는 화재·교통사고·범죄·안전사고·자살·감염병·자연재해의 7개 분야임

〈지역안전지수 분야별 등급 결과〉

| 년도 | 화재 | 교통 | 범죄 | 안전사고 | 자살 | 감염병 | 자연재해 |
|------|----|----|----|------|----|-----|------|
| 2015 | 4 | 4 | 3 | 3 | 4 | 3 | 3 |
| 2016 | 4 | 4 | 3 | 4 | 4 | 3 | 3 |
| 변동 | - | - | - | ↓1 | - | - | - |

※자료 : (구)국민안전처, 15년·16년 지역안전지수 공개 결과 재정리

- 화재분야는 2013년 이후 화재로 인한 사망자수가 감소추세이나 타 시·도에 비해 높은 편이며, 교통사고는 인구 1만명당 사망률이 전국 3위로 매우 높은 편임

- * 교통사고는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의 사망자가 42%(2014년 기준)에 이르며 사고유형별로도 횡단중 사망자수가 가장 많아 고령비율이 높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대응방안 요구

〈연령별 교통사고 사망자수(2014년)〉

| 구분 | 합계 | 20세 이하 | 21~30세 | 31~40세 | 41~50세 | 51~60세 | 61~64세 | 65~70세 | 71세 이상 |
|----|-------|--------|--------|--------|--------|--------|--------|--------|--------|
| 전국 | 4,489 | 260 | 350 | 385 | 577 | 857 | 279 | 470 | 1,311 |
| 충남 | 385 | 17 | 24 | 34 | 46 | 84 | 18 | 57 | 105 |

※자료 :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index/index.jsp>)

- 자연재해 분야는 지역안전도의 진단결과를 반영하며, 2016년 지역안전도 지수 분석결과 충남은 전년도에 비해 다소 향상되었으나, 시·군별 편차가 계속 존재
- 지자체별 지역안전지수의 공개에 따라 지역의 안전도에 관한 단면이 평가되고 분야별 취약성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면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 필요

3. 안전충남 2050 수립과 안전에 대한 미래 지향점 제시

- 안전충남 2050은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는 미래에 대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충청남도를 위한 제안

- * 기존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가치 설정의 필요성에서 시작
- 안전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화와 소통, 도민참여에 의한 비전 수립이라는 기본적인 원칙이 전제되어야 함
 - * 종전의 획일적인 계획 수립 형식에서 탈피하여 도민과 함께 안전충남 미래상을 그리는 bottom-up 방식의 비전 수립
- 도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전문가 중심의 비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면서 도민-전문가 간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새로운 안전의 가치를 찾아내고자 하였음
- 「안전충남 2050」이라는 비전이 담고 있는 기본이념은 생명가치 존중, 더불어 함께, 누리는 안전의 세 가치를 제시
 - * 도민들의 의견을 분석한 결과, 위 세 가지 요소를 안전충남 비전의 핵심적 가치로서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 「안전충남 2050」을 달성하기 위해 5가지의 목표를 제시하고 그에 따른 전략과 추진과제를 도출
 - 스스로의 안전인식 개선과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실천적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높은 의식과 실천의 안전문화를 도모
 - 충남이라는 물리적 공간이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고, 재해나 사고 발생시 인프라 혹은 시스템이 즉시 회복될 수 있도록 복원력(resilience)을 지닌 안전생활터를 지향
 - 도민생활의 기본권으로서 안전권을 누리고, 재난 및 안전약자와 취약계층을 점 더 배려함으로써 함께 누리는 안전복지를 실현
 - 권한과 책임을 지닌 안전자치를 구현함으로써 실질적인 현장 대응능력을 높임으로써 신뢰와 소통의 안전시스템을 구축
 - 다양한 네트워크를 거버넌스로 연결하고 각종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유도
- 이러한 5가지의 목표는 안전충남의 지향점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과 과정에 있어 상호 보완·연계성을 가지며, 궁극적으로 안전한 충남을 이뤄내고자 하는 공통된 목표점을 내포하고 있음



< 「안전충남 2050」 비전 체계 >

4. 참여와 협력을 통한 안전충남 2050의 실현

- 안전충남의 실현을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안전의식, 문화, 재난안전 관리체계 등 전반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
- 종전의 안전에 대한 인식은 경제논리가 우선시되어 안전을 규제로 인식하는 측면이 강하였으나, 앞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안전의 개념이 더욱 강조되어야 함
 - *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토대로 책임성과 자율성, 연계성과 파트너십이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음
- 재난안전 관리에 있어서 종전의 수직적 전달체계에서 즉응성 및 대응력의 한계를 경험하였으며, 기관간의 수평적 협력 및 지원체계 속에서 효율적이고 신속한 대응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지금까지는 재난 및 사고발생에 따른 책임이 중앙 및 지방정부의 책임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이는 모두의 책임이라는 인식을 공유하여 너나없이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속에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참여와 협력의 안전거버넌스를 위해서는 다양한 안전 네트워크가 구

성되어야 하며, 구성된 네트워크를 거버넌스로 연결하여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가도록 함

*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명령, 지시, 통제, 감독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협력, 연계, 조정, 지원이라는 틀에 따라 안전거버넌스를 이끌어나가도록 함

- 민간조직을 좀 더 조직화하고 육성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조직은 많으나 실질적으로 효율성 있게 운영되고 있지는 못하고 있음

* 방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민간조직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육성할 필요가 있음

- 민간부문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며 책임성을 부여하여 민간부문의 힘을 최대한 끌어내도록 함

- 이를 위해 시민주도형 안전활동의 영역 확대, 다양한 안전 네트워크의 구성, 안전 거버넌스의 다양한 활동 및 성과 도출 극대화를 도모해 나감

| | 지금까지 (AS-IS) | 앞으로 (TO-BE) |
|--------------|---|---|
| 안전의식 · 문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논리 우선, 안전의 규제 • 수동적 참여, 활동 • 행정의 일방향 정보제공 • 안전복지 개념의 미정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권리로서 안전권 강조 • 자율형 시민운동 중심 • 폭넓고 다양한 안전정보 제공 • 안전복지의 실현 |
| 재난안전 관리체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직적 지시, 전달체계 • 형식적 교육·훈련체계 • 사후복구 중심의 재난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평적 협력 및 지원체계 • 실질적 교육·훈련체계 • 사전예방적 재난안전 관리체계 |
| 추진주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지방정부의 책임 •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형태 • 민간조직의 구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두의 책임 • 자치역량 확보를 통한 안전자치 • 다양한 안전 네트워크의 운영 |

재난대응 강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민관협력 방안

한남대학교 교수

김 검 훈

